

# 광주 북구청 공무원노조, 정기인사 반발

## 구청장, 성과주의 인사마인드 전환 요구

### 성과주의 앞세워 줄세우기 방편 활용 의심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 본부 북부지부(이하 노조)는 성명을 내고 문 인 북구청장이 단행한 7월 2일자 5급이상 인사가 원칙이 무시된 철저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줄세우기 인사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월 1일 승진인사로부터, 7월 2일 단행된 5급 이상에 대한 전보 인사는 여러모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6월에 발표된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의 순위나 질서가 그렇지만 설명이나

유도 없이 부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에게 결과가 매우 과격적이고 예측불허라는 점에서 직잡은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노조는 “근평 순위의 급격한 변화로 직간접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상자들이 ‘구제(?)’ 되었는데, 이러한 날뛰기 인사행위로 해당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속앓이와 불안감까지 해소되었을지는 의문이다”며 “정당한 기득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이 북구청에서는

순식간에 무뎠던 일이 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노조는 “2019년 상반기 근평과 정기인사는 나에게 성과를 보여달라”로 분명하게 요약되는 듯 싶다”며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은 의형상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측정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운영방식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 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조직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의 출현을 방해하고, 조직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인 북구청장을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조직운영방식으로서

성과주의는 이미 낙후된 방식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오래 전에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를 조직운영의 주요한 원리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노조는 “철지난 성과주의가 우리 조직에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줄세우기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문인 북구청장을 향해 “인사정책의 근본적 마인드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성과주의 맹신자였던 전 서구청장의 실책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지역 학교 3곳

### 중 1곳 탈의실 없어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3곳 중 1곳 꼴로 탈의실이 없어 상당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거나 교복에 운동복을 겹쳐 있어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학발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 319개교 중 탈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21개교(69.3%)에 달했다. 고등학교는 67개교 중 52개교(77.6%), 중학교는 91개교 중 72개교(79.1%), 초등학교는 156개교 중 93개(59.6%)에 불과했다.

특히 특수학교 5곳 중에서는 한 곳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전, 211개교에 비해 10개교 증가했지만 여전히 30% 가까운 학교에는 탈의실이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귀찮아서 교복에 운동복을 겹쳐 입는 경우, 여쭙 수 없이 교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또 탈의실이 설치돼 있어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실제 탈의실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체적 변화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육체적, 정서적 특성을 감안, 탈의 공간을 넉넉히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류공간이 부족해서 설치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현황 파악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대다수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개식용 반대 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식용 철폐 전국 대집회에서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식용을 반대하는 강아지 모양의 풍선을 들고 있다.

## 한빛원전 4호기서 ‘깊이 90cm’ 공극 발견...확대조사 진행

### 원전 측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공극 발견

한빛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절판(CLP)과 콘크리트 벽체 사이에서 또 공극(구멍)이 발견돼 원전 당국이 확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공극 발견으로 한빛 4호기의 공극은 45개로 늘어났다. 5일 한빛원전과 민관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추가로 발견된 공극의 깊이는 90cm로 현재까지 발견된 공극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극은 한빛 4호기에 대한 공극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날 격납건물 172피트(ft) 관통부에서 발견됐다.

원전 측이 민관합동 조사단과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함께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관 아랫부분 CLP 절단부위의 그리스(윤활유) 제거 작업 중에 발견했다. 90cm 깊이의 공극은 165cm짜리 콘크리트 격납건물 벽두께의 54%에 가깝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만일의 원전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과 누출을 막는 최후 방벽 기능을 수행한다. 벽체는 철근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강철판(CLP)으로 밀폐돼 있다.

원전 당국은 공극 주변에 대해 확대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되는 7차 계획예방정비 기간까지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관계자는 “공극은 전체적인 크기와 부피가 중요하다. 앞서 한빛 3호기에서 45cm 크기의 공극이 발견된 이후 크고 작은 공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공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주변을 절단해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나주서 흉기로 캠핑카주인 살해 70대 검거

나주에서 70대가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7일 흉기로 60대 남성을 찔러 혐의(살인)로 A(7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나주 봉황면 한 논 앞에서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논 앞에 세워진 B씨의 캠핑카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 치위달라고 요구했는데 비켜 주지 않아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아이 앞에서 이주여성 폭행 30대 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된 이주 여성 폭행 영상과 관련, 경찰이 남편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6일 타국 출신의 부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에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 B씨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년전 교제를 했으며 B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최근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8시7분께 “베트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경찰은 B씨의 상태를 확인 한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며 남편과 분리 조치했다.

또 SNS 등에 공개된 2분26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해 A씨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엔 놀라 도망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이에 대한 학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모 대학병원 앞서 40대 분신 소동

광주의 모 대학병원에서 40대 남성이 분신 소동이 벌어졌으나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복숨을 구했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45분께 동구 한 대학병원 현관 앞에서 A(44)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전세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했다” 등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 ‘아버지가 반려견 죽였다’ 10대 딸 신고

광주에서 아버지가 키우던 반려견을 죽였다’는 10대 딸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2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45)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는 10대 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죽은 강아지 1마리를 발견했으며, 숲에 취한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동물복지법 위반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